

뜬대답 (-對答) [명]

대수롭지 않게 하는 대답. | 〈글세-〉 향단이는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쇠는 하늘만 쳐다보며 이렇게 {뜬대답만} 하고 있다. 〈춘향전〉 [뜨-+- 냉+대답]

※ 겨레말큰사전에서 조사한 북측 새어휘입니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편찬한 (주)낱말 김기형 대표이사

겨레말큰사전은 (주)낱말 어휘처리정보연구소를 찾아 김기형 대표이사로 부터 20여년의 긴 연구 끝에 편찬한 국내 최대의 시소러스 사전인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200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겨레말 편찬 현장

일본 지역 우리말 조사 위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방문

사업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겨레말큰사전>에 실을 해외 우리말 조사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였다. 이길재 새어휘팀장 등이 방문한 이번 방문에서는 재일동포 사회 최대 신문인 민단신문사와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하여 일본에서 발간된 한글 문헌 자료를 파악하고 재일 동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에 얹힌 이야기

간자장의 달걀프라이
그리고 부산말 ↗ ↘ ↙ ↘

— 미근열 부산대 강의교수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 타 지역에 가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말씨와 음식이다.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에 와서 느끼는 역동적 억양과 짜고 강렬한 음식 맛은 충격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부산사람이 쓰는 거친 억양은... 좌뇌에 거침없이 충격을 가하여 상대에게 전투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고, '-소'로 끝나는 등급이 구분이 되지 않는 말끝은 버릇없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찾아가는 겨레말

국사 편찬위원회 해외 자료 수집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국사관으로 출발하여 1946년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사 연수·교육...

겨레말 소식

- '겨레말큰사전' 교과서에 실리다
- '남북 언어 차이' 체험 교실
- 제52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연장 · 말에 얹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이 만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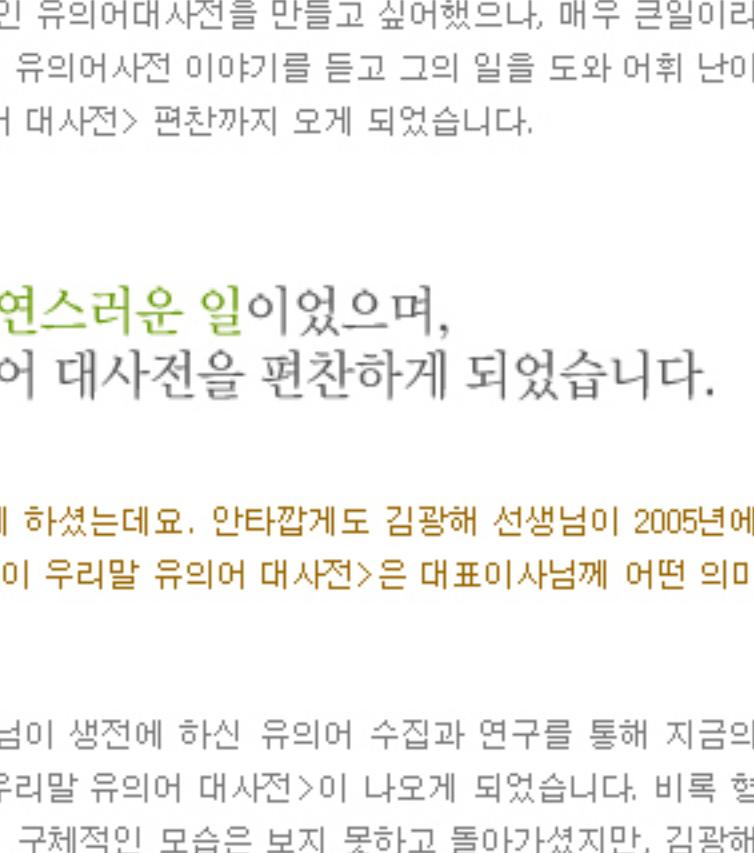
국내 최대의 우리말 시소러스 사전 편찬한

(주)낱말의 김기형 대표이사

겨레말큰사전은 (주)낱말 어휘처리정보연구소를 찾아 김기형 대표이사로 부터 20여 년의 긴 연구 끝에 편찬한 국내 최대의 시소러스 사전인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200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인터뷰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9년에 (주)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에서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을 펴냈는데요. 먼저 연구소와 사전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는 기초 어휘를 연구하는 곳으로 사전 편찬과 어휘력 측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반의어사전>, <방언 사전> 등의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유의어 대사전을 편찬하면서 연구한 난이도를 바탕으로 독서능력 측정평가, 어휘력 측정평가, 컴퓨터 적용검사 등의 평가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시소러스 사전으로 외국에서는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보편화 되어있어 어휘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김광해 교수(서울대 국어교육과)가 펴낸 <유의어·반의어 사전>이 최초이자 유일한 사전이었습니다. 이 사전을 기초로하여 수집 가능한 유의어 어휘를 모두 수집하여 대사전으로 이름을 붙여 지금의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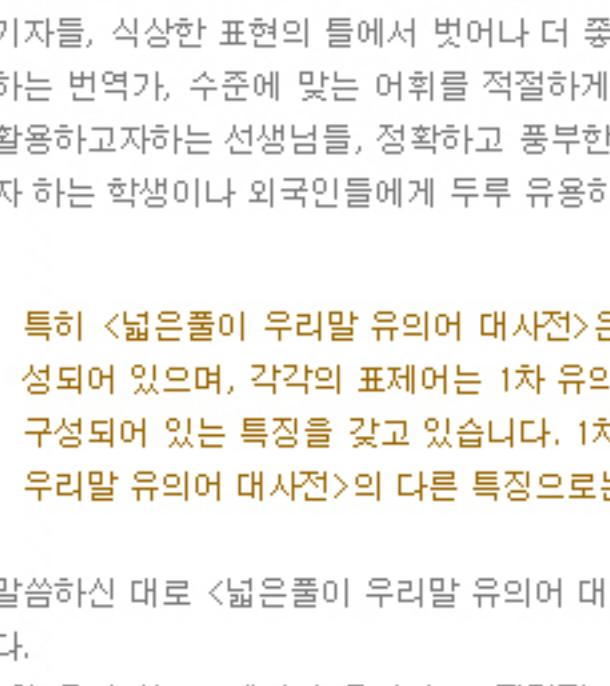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2005년 작고하신 김광해 교수(서울대 국어교육학과)의 책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김광해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고하신 김광해 교수는 저희 친형인데요. 김광해 교수는 언어학자이자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형님은 우리나라에 유의어 어휘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7년 정도의 연구 끝에 1987년에 <유의어·반의어 사전>을 펴냈습니다. 그때 제가 연구실로 찾아갈 때면 낱말카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대학원생들과 어휘 연구 작업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본래 김광해 교수는 <유의어·반의어 사전> 편찬 이후 본격적인 유의어대사전을 만들고 싶어했으나, 매우 큰 일이라서 선뜻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형님께 유의어사전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일을 도와 어휘 난이도 분류작업을 시작하게 된 게 지금의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편찬까지 모계 되었습니다.

**제게도 이미 사전 편찬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물 흐르듯이 흘러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이사님은 김광해 선생님 생전에 형님을 도와 일을 함께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김광해 선생님이 2005년에 작고하셨고, 그 후에야 사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대표이사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광해 선생님이 생전에 하신 유의어 수집과 연구를 통해 지금의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님은 이 책의 구체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김광해 교수는 이 사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형님의 유업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게도 이미 사전 편찬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편찬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김광해 선생님의 첫 연구로부터 20여 년 만에 나온 사전인데요. 20여 년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려움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인 힘으로 편찬했습니다. 편찬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편찬되어 판매되고 있는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종이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사전을 만드는 일만으로는 회사 유지가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사전 편찬은 기초 연구다보니 책이 만들어져도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과 전자사전의 영향도 커서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전을 편찬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사전의 완성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소장)와 현재 어휘정보처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심재기 선생님(서울대 명예교수)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김광해 교수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소장을 맡았을 당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민현식 교수가 표제어 선정 문제 등의 사전의 큰 틀을 잡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심재기 선생님은 형님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사전에 들어갈 어휘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에는 10만여 개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1차 유의어 28만여 개, 2차 유의어 200만여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의어 대사전>은 일반 사전과 다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의 의미라고 할까요? 특히 우리 언어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일반적인 사전을 '정규사전'이라고 하고, <유의어 대사전>을 '활용사전'이라고 합니다. 정규사전은 그 단어의 뜻을 모를 때 찾는 사전이고, 활용사전은 뜻은 알고 있지만 다른 뜻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찾아보는 사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동일한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채로운 글을 쓰고자하는 작가나 기자들, 식상한 표현의 틀에서 벗어나 더 좋은 표현을 하고자 하는 번역가, 수준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교육에 활용하고자하는 선생님들, 정확하고 풍부한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나 외국인들에게 두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전입니다.



특히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은 유의어 사전 중 국내 최대 규모의 10만여 개의 표제어로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표제어는 1차 유의어와 2차 유의어의 형태로 확장되어 한눈에 다양한 유의어를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유의어와 2차 유의어는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며,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의 다른 특징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의 표제어는 1차 유의어와 2차 유의어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유의어는 표제어의 유의어로, 임정적 의미의 모든 유의어를 종에서 방언이나 구(句) 등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1~5등급에 해당하는 말들을 등재했습니다. 어휘 난이도는 김광해 교수의 한국어의 등급별 총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에 기초한 어휘 등급(2001)에 의해 나누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기초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유의어는 1차 유의어 각각에 해당하는 유의어입니다. 즉 1차 유의어가 2차 유의어의 표제어 구실을 하는 형태입니다. 2차 유의어의 확장은 표제어의 유의어망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휘가 가진 다양한 의미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유의어 목록에는 해당 어휘의 비슷한말, 구(句), 구어(舊語), 낯춤말, 높임말, 반대말, 방언, 본말, 북한어, 비속어, 순화어, 어린이말, 외래어, 원말, 은어, 음역어, 준말, 참고어 등도 같이 묶어 제시해 주었습니다.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에는 10만여 개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1차 유의어 28만여 개, 2차 유의어 200만여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단어의 의미 상관관계를 넓게 확장한 의미망 사전인 것도 이 사전만의 특징입니다.

**2009년에는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2010년에는 방언사전, 반대어 사전 등의 5권의 사전이 편찬되었으며,
올해 안에 <의성어·의태어 사전>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2009년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편찬 이후 2010년에는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중사전>과 <초등학생·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유의어 사전> 등이 편찬되었는데요. 현재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과 관련된 보완 작업이나 그 외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에 이어 2010년에는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을 활용하여 유의어 중사전, 방언사전, 반대어 사전 등의 5권의 사전이 편찬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성어·의태어 사전> 작업 중으로 옮해 안에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자연현상과 관련된 어휘, 정서와 관련된 어휘 등의 갈래 사전 성격의 유의어 사전을 계속 편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유의어 사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반의어사전과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 등의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긴 시간동안 사전 편찬을 해오신분으로서 <겨레말큰사전>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규사전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전 편찬 시 디지털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시면 나중에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겨레말큰사전도 잘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겨레말큰사전

제 33 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편찬 현장

일본 지역 우리말 조사 위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등 방문

사업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겨레말큰사전》에 실을 해외 우리말 조사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였다. 이길재 새어휘팀장 등이 방문한 이번 방문에서는 재일동포 사회 최대 신문인 민단신문사와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하여 일본에서 발간된 한글 문헌 자료를 파악하고 재일 동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유한 겨레말을 찾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찾은 민단신문사에서는 박득진 주간이 직접 맞이해 주었다. 민단신문사는 1947년 6월부터 발행된 신문으로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도를 통해 재일동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어로 발행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특히, 방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겨레말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회 입장에서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야 일본어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판 한글 민단신문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방문의 주요 대상이었던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2005년 11월에 문을 열었다. 재일동포 생활실태, 민족교육, 문화예술활동 등의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자료관은 해방전의 재일동포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제1전시실, 해방 후 재일동포의 발자취를 전시하고 있는 제2전시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재일동포의 저서 및 재일동포와 관련된 서적을 중심으로 한 도서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서자료실에는 약 4,000여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재일동포들이 발간한 한글 잡지, 보고서, 신문, 문학작품 등 300 점 이상의 한글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소장된 자료를 통해 일본에서 한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신문사, 교육기관, 동호회 등의 일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업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관련 인사 및 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현지에서 발간된 한글 자료를 획득하여 겨레말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소장된 자료 열람을 통해 현장에서 십여 개의 새어휘 예비 울림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새어휘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문헌자료 확보와 함께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재일동포들이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어휘를 다수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사업회는 일본 현지 관계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일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회는 지난 5월 사찰린 방문 후에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사찰린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겨레말큰사전

제33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얹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말에 얹힌 이야기

간자장의 달걀프라이 그리고 부산말

_ 이근열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강의교수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 타 지역에 가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말씨와 음식이다.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에 와서 느끼는 역동적 억양과 짜고 강렬한 음식 맛은 충격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부산사람이 쓰는 거친 억양은 좌뇌에 거침없이 충격을 가하여 상대에게 전투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고, '-소'로 끝나는 등급이 구분이 되지 않는 말끝은 버릇없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포장 없이 건네는 선물처럼 불쑥불쑥 들이대는 언어는 난처함의 연속이다. 고슴도치의 거리가 무시되어 언제든지 말로 아프게 찌른다.

음식은 더 충격적이다. 먹장어를 산 채로 고추장과 양파에 버무려 불판에 올려놓아 꿈틀대며 익어가는 모습은 징그럽고, 돼지뼈를 고마 국물을 만들고 기름이 둥둥 뜨는 돼지고기를 썰어 넣은 국밥은 돼지 냄새가 날 것만 같아 두렵다. 또한 메밀이 아닌 밀가루로 면을 뽑아 찬 육수에 말아 밀면이라고 내 놓고 있는 것도 이상야릇하다.

그들은 모두 부산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 해운대나 광안리에 살고 있으며, 매일 맛있는 회를 먹고 여름에는 할상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말을 노력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들의 눈은 틀린 것일 수 있다. 아무리 노력 하더라도 영감이 1%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는 에디슨의 눈에는, 보통 사람과 천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부산은 변방의 항구도시만이 아니다. 근대사의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예전에 왜관을 열어 일본인의 거주 지역을 만들어 일본상인을 수용한 곳이고, 해방의 기쁨이 광복동에 남아 있는 곳이며, 6.25의 피난 시절 임시 정부까지 이곳에 숨겨온 곳이다. 산업화의 열풍에 따라 신발 공장과 섬유 공장, 조선 공장이 설립되고 경상, 전라, 강원의 여러 지역의 일꾼들이 모여든 곳이다.

부산의 음식은 부산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마다 그 세찬 비바람과 그것을 이겨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꼼장어'는 먹장어의 껍질을 벗겨 고추장 양념에다 버무려 불판에 구워먹는 음식이다. 꼼장어는 음식이름이자 생선이름이다. 꼼장어는 껍질이 질기면서도 부드러워 가죽으로 쓸모가 있었다. 일제 시대에 꼼장어 껍질을 벗겨 일본 나막신의 끈과 모자의 테를 만들었다.

일본 사람들이 껍질만 귀하게 여기고, 꼼장어는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배고픈 부두 노동자들이 껍질 벗긴 꼼장어를 불에 구워 먹기 시작했고, 남은 껍질은 삶아서 묵을 만들어 먹은 것이 '꼼장어묵'이다. 피난 이후엔 막막한 살길을 얹세게 개척한 자갈치 아지매들로 인해 고추장에 버무린 꼼장어 구이가 만들어 지고 오도록 씹히는 식감과 단백한 맛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꼼장어의 꿈틀거림은 척박한 피난지에서 살아온 자갈치 아지매의 힘든 삶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돼지 국밥도 피난지의 산물이다. 쇠고기가 귀한 곳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돼지를 설렁탕처럼 끓인 것인데, 돼지뼈를 푸고마 '진땡[진탕]'을 만들고 거기에는 돼지 머릿고기를 넣고 돼지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정구지[부추]'와 양념장과 '새비젓[새우젓]'을 넣었다. 돼지국밥은 바쁜 피난 시절 주린 허기를 채워준 지혜로운 대안이었다. 이러한 대안은 '밀면[밀가루로 만든 면]'으로 숨겨진다. '밀면'은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온 이북 사람들의 향수가 담겨있다. 구호품으로 받은 밀가루를 메밀가루처럼 생각하고 '매매[매우]' 치대며 향수의 눈물을 섞고, 밀가루 내미[냄새]를 없애기 위해 맵고 강한 양념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육수를 부어 평양식으로 밀면을 만들고 물없이 비벼서 함흥식으로 비빔밀면을 만들어 먹었다. 돼지국밥과 밀면은 결핍을 지혜로 창출한 음식이었다.

부산말도 부산 음식처럼 얹센 바닷 바람과 일제 시대와 피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3단으로 나타나는 높낮이는 첫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끊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투박하게 들리는 대신, 선명한 전달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높낮이의 효과는 모음을 단순화하고 음절단위의 발음법으로 나타나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한다. 말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들리게 하려는 의식은 둘음법에도 나타난다. '-가/나/고/노'와 같이 둘음의 표지를 확실히 드러내어 억양으로만 드러내는 다른 지역의 말보다 전달효과가 높다. 또한 '-소'로 끝나는 반말도 다양한 부류가 섞인 지역에서는 서로가 낮을 블히지 않을 적절한 평형이었기에 다른 지역보다도 부산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투박함을 없애기 위해 '-예'를 붙여 부드러움을 더할 수 있었다. 나름대로의 강할 속에 숨겨둔 부드러움이 있었던 것이다. 타향 사람들이 많았던 부산은 서로를 엮어 가기 위한 친밀한 전략은 '아재'나 '아지매'라는 친족어로 서로를 부르고, '우리가 남이 가'를 외치며 넓은 바다를 헤쳐 나가는 어울림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간당, 카배추, 양배차[양배추]로 엮어지는 한자어와 일본말, 우리말의 모자이크처럼 부산말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지방말은 피난의 아픔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부산말 '이쁘다'와 '새찮다'는 그 기능이 다르다. '이쁘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다는 의미로 쓰지만 '새찮다'는 사물의 모양이 작거나 색깔이 아름다워서 사물이 귀여울 때 쓰는 말이다. 또한 '국자'와 '쪽(자)'는 지시물이 다르다. '쪽자'는 '반쪽'이나 '쪽발이'에서 보듯 '작다, 반'이란 뜻의 '쪽'을 어원으로 하며, 작은 국자를 의미한다. '달고나'를 '쪽자'로 부르는데, 원래 '쪽자'는 국자로는 만들어 먹지 않았다. 부산 사람들은 '어묵'과 '오뎅'이 다른 식품임을 안다.

결국 그 지방의 말은 지방 사람들의 정서와 역사의 나이테인 셈이다. 역사 속에 용이진 나이테를 보면서 그 속에 녹아 있는 그들의 삶을 자신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태도는 아직도 우리에게 그들을 이해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간자장에 달걀 플라이를 얹어 주는 부산 사람들의 인간미를 세상 물정 모르는 장사꾼처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 이근열 |

부산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국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남방언의 음운론」(1997), 「사투리미학』(2006) 등이 있다. 주로 부산 방언, 지명을 통해 부산 문화를 해석하여 대중화하는데 연구의 힘을 쓰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제33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얹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찾아가는 겨레말

해외 수집 자료 수집·조사하여 공개하는 국사편찬위원회 – 일반인들에게 수집한 자료 사료관 통해 열람 가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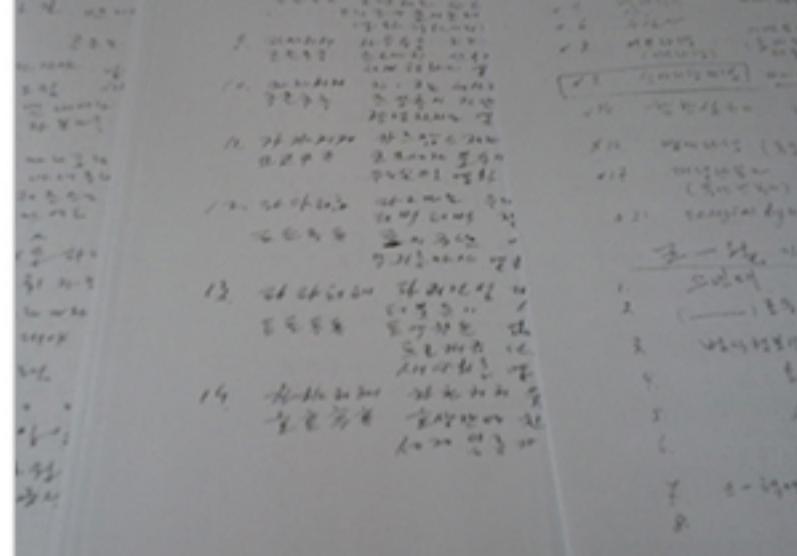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국사관으로 출발하여 1949년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사 연수·교육·대중화, 남북협력사업, 한국사 연구 지원, 국내·국외 사료 수집·정리·공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사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또한 한국사 연구의 국제적인 조망과 확산을 위하여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논쟁점이나 과제들을 선정하여 토론과 발표를 하는 국내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마을러 남북의 화해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북한 역사 연구, 공유 및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진행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수집·조사된 자료를 사료관에 소장하여 학생 및 일반인 등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료관에는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자료, 국내 수집자료, 국외 수집자료,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마이크로 필름), 대마도종가문서(마이크로 필름), 북한관계자료 등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사료관 이용 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09:30~17:30, 점심시간 제외) 이용 가능하며, 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사료관 1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 자료 대출은 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열람만 가능하며, 열람한 자료는 희귀본 등을 제외한 일반 자료는 복사도 가능하다. 또한 열람실 안에 별도의 멀티미디어실도 있어 CD, DVD, 비디오 등으로 된 자료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사료관에서는 국내 자료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유럽지역에서 수집한 총 3,297,633장/3,231권의 해외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에서 열람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선생이 기증한 노래(가사) 자료
(겨레말큰사전은 이와 같은 자료를 열람한 후 해외 우리말 조사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구술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재외동포 구술 자료는 정치(정책, 군사, 외교), 경제(노동 포함), 사회문화, 학술, 일제시기사, 북한사, 여성사, 다문화, 지역사, 동포사 등 매우 다양한 주제들로, 현재까지 총 3,500여 시간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재외동포 구술 자료는 내년쯤 사료관으로 이관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

제33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얹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겨레말큰사전’ 교과서에 실리다

<겨레말큰사전> 관련 내용이 새로 개정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 및 생활국어 교과서(2학년 2학기)에 실렸다. <겨레말큰사전> 내용을 실은 국어 교과서는 대교와 창비 교과서 등 총 7종이다.

이들 교과서에는 남북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는 내용과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중 한 교과서는 ‘분단되기 이전의 한국어는 표준어와 맞춤법이 하나로 통일된 언어였지만, 분단이 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언어 정책을 시행하며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졌다.’고 말하며,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은 분단을 강화하고 통일을 막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남북한 통일은 언어를 통일하는데 부터 시작해야하고, 이를 위한 노력 중 하나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분단 이후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함께 편찬하는 첫 사전으로, 30만여 개의 표제어를 실을 예정이며, 이 중 10만 여개는 남북의 사전에 없는 새어휘로 남북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조사하여 실을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북의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분단과 지역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겨레말큰사전은

- 분단 이후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함께 편찬하는 첫 사전’이면서,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본 최초의 사전입니다.
-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함께 ‘단일이문규범’을 작성하여 편찬한 사전입니다.
- 수집한 이회 자료 가운데 남과 북이 광동으로 쓰는 말은 우선 옮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성실히 합의하여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옮김말을 실을 대사전입니다.



제1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회의
• 일시: 2005년 2월 19일~21일
• 장소: 금강산



제8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회의
• 일시: 2006년 11월 27일~30일
• 장소: 중국 북경



제14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회의
• 일시: 2008년 5월 12일~15일
• 장소: 중국 북경



제18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회의
• 일시: 2009년 6월 21일~23일
• 장소: 중국 상하이

겨레말큰사전

제33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얹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남북 언어 차이' 체험 교실 열어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3일(금) '남북 언어 차이'라는 주제로 '<겨레말큰사전> 언어 체험교실'을 열었다.

이번 '<겨레말큰사전> 언어 체험교실'은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표와 세밀화 일부를 전시하였으며, 사업회에서 개발한 사전집필프로그램을 이용한 <집필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가 사전에 수록하고 싶은 어휘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전 편찬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갖게 하였다.

사업회는 이 외에도 <남북의 언어 차이> 주요 유형 예시를 제시하여 순화어, 새말, 규범어 설정 지역의 차이, 표기규범 차이, 의미 변화로 인한 차이를 설명해 줌으로써 참석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문학 속의 북한 방언>에서는 북한 방언 어휘를 표준어와 대비하여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문학 작품에 나오는 방언 어휘를 가려 뽑아 뜻풀이하여 참석자들의 북한 방언 이해를 도왔다.

한편 사업회는 이번 체험교실에서 <새국어사전>, <조선말대사전> 등을 참석자가 직접 찾아보게 함으로써 남북한 자모의 배열 순서 차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교실에 참석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문정화씨는 "<겨레말큰사전> 사전편찬의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함께 사용할 <겨레말큰사전>이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인다.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며 격려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사업회는 앞으로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

제33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얹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제52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사업회는 지난 6월 16일 제52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은 이사장,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회 업무 현황 및 2012년 사업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공동 편찬 요강> 검토 결과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12 [3]